

2009

겨울호
예순셋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마을



www.kclf.org

함께하는 사랑을 모아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경규한
(주)리바트 대표이사

사랑은 나눔으로 인해 그 빛을 더욱 발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랑 또한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에 실천할 수 있으며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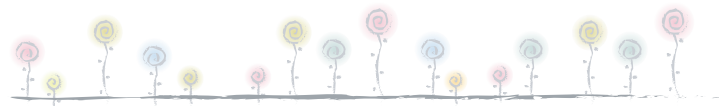
저희 리바트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모아 '자투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사랑 나눔을 시작하였고,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위로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돌아오는 직원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가슴속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꽃샘추위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 춥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잠시 힘든 일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주신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감사의 말씀 전하며 앞으로도 어린이들과 작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눌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족'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입니다.

추석 명절, 난생처음 차를 빌려 아이들과 목적지 없는 여행을 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엄마가 운전하는 차에 타서 얼마나 신기해하던지... 나까지 덩달아 신나고 행복했다.

첫째 날은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본 맛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아이들과 "우리 뭐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도 했다.

둘째 날은 청주에 갔다. 우리 쌍둥이를 낳은 곳이다. 힘든 기억도 많고 추억도 있는 청주... 내게는 애증의 장소이기도 하다. 오랜만에 쌍둥이를 낳을 때부터 도와준 언니를 만나 함께 지냈다.

다음 날은 충주 문의마을에 갔다. 도현이는 걸으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절뚝거렸다. 걱정스런 맘에 "도현아, 엄마가 업어줄까?" 했더니, "엄마가 업어주면 좋는데,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 싫어요."라고 한다. "엄마가 도현이 업고, 도현이 가고 싶는데 데리고 가줄게." 했더니, "그럼, 엄마가 힘들어서 안돼요."라고 한다. 아프고 나면서 더 큰 것 같다. 내가 제일 신경쓰이는 것이 "애가 애답지 않고, 어른스럽다"라는 말을 듣는 것인데... 도현이는 항암하고 아플 때도 엄마를 먼저 걱정한다. 그런 도현이를 보면 때로는 왠지 모를 자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씻기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도현이가 무엇인가를 적고 있다. 그래서 "도현아, 뭐해?"라고 물었더니, 명절에 있었던 행복한 일들을 일기로 쓰고 있단다. 일기로 써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면 보여주지도 않고 숨기면서 쓰고 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 도현이가 쓴 일기를 들춰 보았다.

일기를 읽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간의 어려움과 벽참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고, 일한다고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아직 어린데도 엄마를 이해해 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어 한참을 울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아픈 도현이도, 아픈 동생 때문에 늘 두 번째로 밀렸던 형인 동현이도 힘을 얻었고, 우리 세 식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나 혼자서는 절대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이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빠가 없다. 그래서 명절 때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이번엔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버셨나보다. 차도 빌리고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먹고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했다. 청주 이모집에서 자고 집에 오는 길엔 문의마을이란 곳에 들러 엄마랑 형이랑 구경도 많이 하고 너무도 행복했다.
다음 명절도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지만 우리 엄마가 또 힘들게 일해야 하니 그냥 난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엄마 사랑해요...

- 도현이의 일기중 -

* 도현이는 2007년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입니다. *
도현이 가족은 'MBC 어린이에게세생명을'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의 '행복한 가족! 소중한 추억!'에 참여하여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외국 교육지원 사례

2009년 봄호부터 우리나라 소아암 어린이들과 관련된 교육지원과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호에서는 외국에서 시행중인 교육지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정책 및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해 교육 : Kids on the Block(KOB)

- 인형극을 통한 건강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 실제 아동과 키가 비슷한 막대인형, 손인형들을 사용하여 교육

2 초등교육 사례 : Class Act

- 초·중등 교사 및 병원학교 교사와 소아암 어린이가 함께 참석하여 소아암 어린이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회의를 매주 1회 실시
- 병원학교 교사가 학교와 연락하여 학생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학생에게 제시되어야 할 과제물을 보내줄 것을 학교에 팩스로 요청
- 학생들이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치료과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놀이와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3 청소년 대상 자기 이해 프로그램 : Meeting the challenge

-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장애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대인관계 기술 교육
: 자기인식, 사회적 모방, 대화 기술, 주장 혹은 직접적 의사소통, 공감, 적극적 경청, 갈등해결과 문제 해결

4 중등이후의 교육 : HIV University

- 건강장애여성의 욕구에 의해 출발한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슬픔, 분노, 좌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자신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돕는 프로그램
- 청소년기 이후 건강장애학생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고용과 여가활동,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인식하고, 가능한 독립적으로 자신의 병을 관리하며, 자신의 장애에 타인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5 Kansas KIDS

- 병원학교와 학생의 소속 학교를 웹사이트로 연결하여 입원 치료 중인 학생들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박은혜, 박지연, 노총래, 김은주, 『교육 취약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모형 개발』, 2004,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 중

어린이용 소아암교육 홈페이지 '소아암교실 www.kclf2.org' 개편

재단에서 정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아암교실'은 소아암 치료과정과 검사 등 의료적 부분과 함께 암 발병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인 변화를 어린이의 이해 수준에 맞춰 설명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제공 홈페이지입니다. 2009년 12월 개편되면서 신설된 코너를 소개합니다.

* 소아암 백과사전

소아암과 관련된 용어들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병원탐험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병원 환경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내 머릿속 생각들

소아암 어린이의 형제, 자매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합니다.



* 영상 메시지

소아암 완치자와 소아암 어린이의 형제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 소아암교실 홈페이지는 '금호아시아나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당당한 그녀를! 배운다

소아암 치료 중인 청소년(나희)과 소아암 치료가 종결된 대학생(미경)과의 만남!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이들의 대화 속으로 한 번 들어가 볼까요?

나 희 : 안녕하세요.

미 경 :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 희 : 언니는 언제 치료 받았어요?

미 경 : 초등학교 5학년 때 발병했어. 이식하고 나서 6학년 때 치료가 끝나고,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무릎에 물이 차서 중등학교 때까지 체육은 하지 못했어.

나 희 : 저도 지금 학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요. 이것저것 제약도 많구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 경 : 그렇구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가 내가 백혈병이라고 놀렸어. 그런데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결국 다른 친구가 “너 그런 말 하지마.” 라고 대신 얘기해 줘서 위기는 모면했지. 놀렸던 친구가 실수였다고, 생각이 짊었다고, 사과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나 자신한테 충격을 받았어.

나 희 : 친구 때문에 속상했겠어요. 친구들이 병을 모두 알았나 봐요?

미 경 : 응. 중학교 때도 머리가 나지 않아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 친구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고, 담임선생님께만 말씀드렸어. 백혈병이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 그래도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알게 되더라구.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랑 싸웠는데, 싸우는 중에 친구가 “너는 백혈병에 걸렸다면 집에나 있지. 왜 학교에 왔니?”라는 말을 하더라구. 그 때는 어릴 때처럼 숨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많이 미안

해 하면서 사과했어.

나 희 : 저는 아이들과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힘들어요.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전 그 대화, 문화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학교에 안 가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활발한데 친구들한테는 다가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미 경 : 맞아, 나도 그랬어. 며칠 학교에 못나가다가 가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내가 없을 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난 멍하니 있고 그랬어. 그게 조금 힘들었어. 하지만 치료 중,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들 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공감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어. 요즘은 휴대전화 문화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 병원에 있을 때도 친구들과 통화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나 희 : 친구들이 모두 바빠서 연락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좀 힘들어요. 특히 수업진도도 못 따라가서 그것도 힘들구요.

미 경 : 공부, 정말 어렵지. 나는 발병 전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했어. 아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잘 했구나^^. 엄마는 항상 “공부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하시며, 보호하려고만 하셨어. 엄마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 마음 잘 알기는 하는데, 너무 보호하려고만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



염 미 경

1989년 4월 25일생
2000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2001년 치료종결
현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내가 어리기만 한 것은 아닌데 말이야. 처음 백혈병 진단을 받고 거의 두 달을 엄마가 날 속였어. 곧 나를 것이라고만 했었는데, 난 이미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고 있었어. 그러다가 엄마가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내가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때 엄마가 믿지는 않았어. 우리 엄마는 약하니까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더 힘들어 견디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어. 엄마는 계속해서 날 너무 감싸기만 했지. 엄마가 공부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 ‘난 남들보다 빨리 죽는가 보다.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다 필요없다고 하나보다. 그래, 어차피 죽는 거라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말이야. 지금에서야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건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상대하기 싫었고 간호사 선생님 얼굴도 보기 싫었어. 주변에서 3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의 병을 알아가면서 서서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 내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날 멀리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오히려 치료를 견디는 것에 대해 대견해 하고, 말없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준 친구들도 너무도 많았어. 그러면서 더 긍정적인 아이가 되었던 것 같아. 어차피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잘 이겨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생각을 바꾼 후부터는 당당해졌던 것 같아.

나 희 : 우리 엄마는 처음부터 바로 백혈병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매우 심각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어서 저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치료에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어떻게 제일 힘들었어요?

미 경 : 함께 치료받다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힘들고, 두려웠던 것 같아. 하지만 그것도 ‘생각하지 말자, 그 친구보다 난 더 강해져야 해.’ 라고 되새기며 잊으려 노력했지.

나 희 : 저도 그럴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미 경 : 아, 그리고 가족들에게 많이 미안했어. 아플 때 언니가 고3 수험생이었는데, 모두 나한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언니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아니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겠다. 하루는 언니랑 텔레비전 문제로 싸움을 했어. 언니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잠을 자는데,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끄라고 하다가 싸움이 되었어. 그런데 그 때, 언니가 울면서 모두다 병원가고 없을 때 혼자 너무 무서워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버릇이 되어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잠이 안온다고 말하는 거야. 너무너무 미안했어...
 나 희 : 맞아요. 오빠도 제가 치료받을 때 고3이었어요. 몸이 아픈데도 엄마에게 걱정 끼치지 싫어서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학교도 못갈 정도였는데, 그걸 모르는 엄마는 얼른 학교가라고 혼내고, 오빠는 혼나면서 학교에 갔다가 조퇴하고 온 사건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언니 남자친구 있어요?
 미 경 : 그동안은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어. 사귀다가 내가 아팠던 것을 알게 된다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겁부터 먹었던 것 같아. 그런데 21살이 되면서 나도 내가 아팠던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해질 수 있게 된 이후, 남자친구가 생기게 됐어. 아직 백혈병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많이 아팠다는 것은 알고 있어.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는 안했는데, 얘기한다 해도 아마 이해해줄 것 같아.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병을 앓았다고 얘기해서 멀어졌던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난 운이 참 좋았어. 대학 들어와서도 정말 힘들었는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아팠다는 사실로 혜택 받은 부분도 많은 것 같아.
 나 희 : 언니 꿈은 뭐예요?
 미 경 : 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살아오면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내가 아픔으로 인해 지금까지 받았던 도움, 사랑, 언젠가는 다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 생각을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어. 내가 이젠 사회복지사가 되어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것 이상으로 힘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거야.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소아암 치료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그리고 통과하고 있는 이들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공감할 수 있었고, 경쾌해 줄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끝을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미경이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나희가 또 다른 소아암 치료 중인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몸을 찌는 수술? 아닙니다! 수혈하듯이 조혈모세포를 정맥혈관으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여자가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공여자는 기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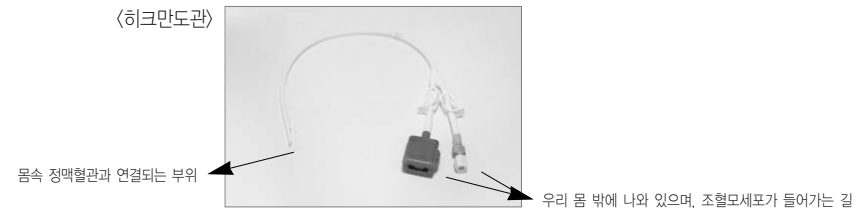
- ▶ 첫 번째 : 이식 전날 입원하여, 이식 당일 조혈모세포를 기증합니다. 전신마취 혹은 척추마취를 한 후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엉치뼈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합니다. 채취하는 데는 약 1시간이 걸립니다.
- ▶ 두 번째 : 이식 전 약 4~5일 동안 백혈구 성장인자를 투입한 후, 1~2일에 걸쳐 백혈구분반술을 통해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게 됩니다. 백혈구분반술에 걸리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방법은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환자는 이식 받기 전, 고용량의 항암제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고 남아 있는 암세포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는 모두 파괴됩니다.

tip : 공여자가 급작스럽게 공여를 거부할 경우, 환자가 크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이러한 강력한 전처치 때문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죠?

조혈모세포이식 당일 이제 공여자로부터 채취한 조혈모세포가 환자의 가슴에 단 히크만도관을 통해 수혈하듯이 정맥혈관으로 주입됩니다. 주입된 조혈모세포들은 마치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향인 골수로 찾아갑니다.

이제 공여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환자의 몸속에 자리 잡고, 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가 재생하며 증식하고 분화하여 환자는 다시 건강한 새생명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료출처〉 『조혈모세포이식』, 국훈, 조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006 / 『소아암』, 김순기, 안효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행복씨앗을 뿌리는 청년들 - 사랑의교회 대학7부

강남교보타워 뒤쪽의 작은 빌딩 좁은 계단을 내려가 찾은 지하공간, 예상했던 칙칙한 어둠이 아닌 밝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체발광의 젊은 청년들때문이었습니다. 300명이 모인 크지 않은 예배실에서 사회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탄성을 외치는, 연발된 실수에는 폭소를 터뜨리며 박수를 치는 이들에게서 젊음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만 행복하기에는 너무 거워서,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청년들은 2008년 6월부터 '사랑의교회 대학7부'라는 이름으로 재단의 간접치료비 지원사업을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 세리하게 따준 젊음과 늙음의 경계선에 대한 생각 *

7세 꼬마 : 50세 이전은 젊음, 50세 이후는 늙음

사랑의교회 대학7부를 다녀온 30대 아줌마 : 커다란 웃음이 있는 곳은 젊음, 웃음이 사라진 곳은 늙음

초기 모금의 시작은 '300명인 우리가 매주 100원이라는 흘려버릴 수 있는 적은 돈을 한 달 간 모은다면, 적지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생각이 지금은 소아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장학금 지원, 생활비 지원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에게서 '행복의 씨앗'은 금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진실을 배웠습니다. '사랑의교회 대학7부' 청년들, 이들의 바램처럼 행복이 더 많은 곳에 심어져 더 많은 행복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만들기 선생님일 왔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 참으로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아이들과는 2009년 1월 휴학을 하면서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휴학을 하고 대학생활 3년을 돌아보니 공부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생활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고등학교 때만해도 친구들과 모여서 봉사활동을 다니곤 했는데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는 자유라는 것에 매혹되어서 잠시 마음 따뜻한 일들을 잊고 지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기 위해 이런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의 시작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수요일에는 한사랑의집에서, 금요일에는 경북대학교병원 9층에서 아이들과 만들기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아이들이 탕수육을 먹는 걸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니다. 사실 언론매체에서 소아암에 걸린 아픈 아이들을 볼 때면 항상 울고 있거나, 생사의 경계에서 사투하는 모습이었습니

행복한 인연 - 문하나 자원봉사자

다. 하지만 제가 처음 본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해맑게 웃으며, 탕수육을 먹으며(^.^),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참 많은 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콧속말로 '선생님이 좋아요'라고 고백한 정환이, 손가락에 힘이 없었는데 이제 가위질 잘하는 우리 혜령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찬송이, 보드게임의 황제 수민이, 책임기를 좋아하는 지민이, 왕자 동건이, 귀염둥이 찬진이, 어른같은 익균이, 종이접기의 달인 세림이, 똑똑한 지혜, 예쁜 거 좋아하는 슬기, 슬기동생 향기, 부끄러운 창환이, 친해졌어 혜림이, 이나영 님은 소영이, 분홍색 좋아하는 백호, 예쁜 지은이 등 만들기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 만들기 시간 때마다 기가 막히게 맛있는 백만불짜리 캔커피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 10개월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 지난 지금, 아이들과 어머니들과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과 맺게 된 소중한 인연들에 깊이 감사하며, 어느 휴학생보다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행복해 합니다.



* 문하나 자원봉사자는 2009년 1월 부터 대구 한사랑의집에서 한사랑교실 선생님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사랑의집에서는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뽀글뽀글~ 산뜻한 비누만들기



지난 11월 3일, 신종플루 이기기 대프로젝트! 아이들은 세균 박멸을 위한 나만의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비누베이스가 녹아가는 모양, 마른 국화꽃을 넣으면 은은하게 나는 향기... 이 모든 것을 가득 담아, "엄마 것~, 아빠 것~, 동생 것~, 누나 것~"이라고 챙기며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도 만들었습니다.

치료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만드는 모습에서 행복함이 묻어났습니다.

* 본 행사는 삼성생명 여의도지점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나는 게임 짱!

매주 목요일 2시!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어떤 친구는 1시부터 와서 이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왜냐구요? 선생님과 바로바로 즐거운 놀이수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넌텐도도 하고, 브루마블도 하고, 덤블링 몽키도 하고... 이 날 프로그램실은 아이들과 선생님의 함성으로 들썩거립니다. 가끔 상품이라도 걸리는 날에는 집이 떠나가지 않을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집의 기둥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승부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선물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엽습니다. 아이들이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래,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시간도 있었어.'라고 이 시간을 생각하며 웃음을 지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노력해주는 놀이수업 임지연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꿈을 향한 4인방의 '드림밴드'

지난 9월 부산 한사랑의집에 부분 기대를 안고 야심찬 눈동자를 반짝이며 모인 4인방이 있었으니, 두둥~! 바로 이름하여, 꿈을 향한 '드림밴드!' 처음에는 기타 잡는 법도,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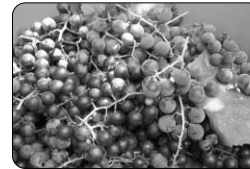
럼 치는 법도 낯설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만, 자원봉사자 선생님의 친절하고 나날이 실력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도, 레, 미..."로 시작한 친구들이 지금은 어느새 노래 한 곡을 함께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숨겨진 실력!! 궁금하시죠?

앞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향한 우리 친구들의 도전과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여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가을향기 과일향기

올 가을 전남 한사랑의집 마당은 과일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마당 한편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다른 한편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잘 익은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바



로 따 그 자리에서 한입 베어 먹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포도와 무화과 열매 덕분에 한사랑의집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과 모여 즐거운 이야기꽃도 피었습니다. 내년엔 나무들이 더 많은 결실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길 바라며, 보약이라도 한 그릇 부여줘야겠습니다.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추석맞이 행사 "떡 사세요~"



한사랑의집에서는 추석을 맞아 함께 명절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송편과 남성팀과 여성팀간의 전통놀이 대결!! 오랜만에 여유롭게 어울리는 가족들의 모습이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현유의 돌잡이

9월 생일잔치, 현유가 첫 번째 생일인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쁜 옷과 머리장식으로 단정한 현유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비록 병원에서 축하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떤 돌잔치에서보다 몇 배 많은 축하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현유야~ 딸과함께라도 좋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신촌 한사랑의집의 소중한 소식!

2층 주택인 신촌 한사랑의집에는 바람돌이가 다니는 바람통로가 있습니다. 1층, 2층,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겨울이 되자 바람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통로를 어떻게 하면 저비용, 고효율로 막을 수 있을까?'를 어머니들과 논의하였습니다. 비닐로 막을까? 문을 달까? 고심 끝에 커튼을 달기로 했습니다. 커튼을 구입하여, 어머니들과 황영웅 자원봉사자 선생님과 옥신각신 커튼을 달았습니까(키작은 사회복지사는 잠시 뒤로^^:). 드디어 11월 20일, 바람통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등 안시렵겠다~" 어머니들이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일에 크게 행복했습니다.

지원 결정 환아 (2009. 9 ~ 11)

이식비 지원환아	
1 이식비 기금	
유해린 (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2,000만원
박정석 (비호지킨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충북)	800만원
한창호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아산병원/강원)	800만원
추현서 (혈구림프식립프로직구종/삼성서울병원/대구)	690만원
이지은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성모병원/경기)	2,000만원
신은지 (혈구림프식립프로직구종/서울대학교병원/제주)	1,500만원
오상현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1,000만원
홍주현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부산)	1,500만원
강민승 (수모세포종/세브란스병원/부산)	1,000만원
김세정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경기)	1,500만원
곽나람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경남대학교의료원/대구)	1,500만원
홍건우 (유인육종/세브란스병원/부산)	1,500만원
박수빈 (유인육종/세브란스병원/울산)	1,500만원
이재우 (수모세포종/세브란스병원/경기)	800만원
2 드림팩토리클럽 (차카개 살자)	
김도현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800만원
3 호성캐피탈 IT기획팀	
추현서 (혈구림프식립프로직구종/삼성서울병원/대구)	110만원
4 한정민기금	
김대성 (골수이형성증/서울아산병원/전남)	800만원
재활치료비 지원환아	
1 재활치료비 기금	
한영정 (백아종/경북대학교병원/경북)	300만원
김지우 (수모세포종/경북대학교병원/대구)	300만원
김재현 (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경북)	200만원
박정훈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북)	200만원
2 외환은행 나눔재단	
신연우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북)	각 300만원
김재현 (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경북)	
박정훈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북)	
3 그랜드코리애저	
이희경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서울)	각 300만원
김준혁 (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제주)	
김도원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치료비 지원환아	
1 MBC어린이에게세상명물	
서해동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성모병원/대전)	700만원
추현서 (혈구림프식립프로직구종/삼성서울병원/대구)	1,200만원
강창모 (버킷림프종/삼성서울병원/부산)	500만원
김세연 (상외세포종/국립암센터/경남)	800만원
황세훈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삼성서울병원/경남)	800만원
박수빈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삼성서울병원/서울)	800만원
김희원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아산병원/전북)	800만원
김용현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삼성서울병원/경기)	500만원
김규현 (유인육종/서울대학교병원/서울)	800만원
한유진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삼성서울병원/경기)	500만원
송호준 (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서울)	800만원
신동혁 (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서울)	1,200만원
공지원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울산)	1,200만원
신은지 (조직구종/서울대학교병원/제주)	690만원
이기영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1,200만원
2 그랜드코리애저	
김학준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아산병원/경기)	500만원
김민재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500만원
황동환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경북)	100만원
유지수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100만원
장재현 (황문근육종/부산대학교병원/부산)	100만원
신아드함광철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500만원
3 금호아시아나그룹	
이천송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경북)	5,270,440원
4 김진철 후원자	
주재현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50만원
5 드림팩토리클럽 (차카개 살자)	
김대성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아산병원/전남)	300만원
6 메리츠화재상보협주식회사	
백근희 (중증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제주)	100만원
7 배재열기금	
강두성 (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각 100만원
반주한 (수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북)	
8 시단법인 디국직기업희고경영자협회(KCMC)	
박단비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150만원
윤지은 (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인천)	400만원
9 삼성SDS 1m 1일 마린론	
최어진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각 500만원
현유진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삼성서울병원/경기)	
김대성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아산병원/전남)	
김민승 (수모세포종/세브란스병원/부산)	
10 삼성필아모닉오케스트라	
강장은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아산병원/인천)	각 500만원
김상우 (버킷림프종/삼성서울병원/경북)	
문석진 (골수이형성증/서울성모병원/대전)	
조연인 (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박윤지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강원)	
11 우정사업본부(우체국한사랑기금)	
류경완 (뇌간교종/서울대학교병원/충남)	각 300만원
변재훈 (황문근육종/삼성서울병원/대전)	
윤지은 (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인천)	
신연우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북)	
채예린 (황문근육종/서울아산병원/광주)	
이해인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삼성서울병원/대구)	
우지수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12 오리동네노래팀	
김한미 (악성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부산)	100만원
13 태진인터넷서브	
김니영 (해장염/세브란스병원/대구)	각 100만원
김해빈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삼성서울병원/충북)	
최어진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대전)	
박단비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류경완 (뇌간교종/서울대학교병원/충남)	
유해린 (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신연우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북)	
윤지은 (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인천)	
김보은 (뇌종양/동아대학교의료원/부산)	
14 토달소프트뱅크	
김정은 (신경모세포종/부산대학교병원/부산)	500만원
15 한국마사회	
노해진 (신경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경기)	500만원
신연우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북)	300만원
16 한정민기금	
김해빈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삼성서울병원/충북)	500만원
김지수 (유인육종/국립암센터/경기)	800만원
정기 간접치료비 신규 지원환아 (매월 각 15만원)	
1 IIG화재 새마을미	
김형훈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2 기업은행농동조합	
김상우 (버킷림프종/삼성서울병원/경북)	
박재훈 (황문근육종/삼성서울병원/대전)	
안예린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이승훈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삼성서울병원/서울)	
이지은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성모병원/경기)	
전세환 (골육종/경희대학교병원/경기)	
3 배재와 개인후원자	
신아드함광철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4 (주)케이엘넷	
김민형 (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전북)	
5 머염은 개인후원자	
김서희 (중증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박현규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아산병원/강원)	
전민주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아산병원/강원)	
6 후니대기금	
한창호 (급성림프모구상백혈병/서울아산병원/강원)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9. 1 ~ 2009. 11. 30

신규 후원자 소개

1) 정기후원

강갑순	구정모	금상욱	김계순	김대형	김미옥	김미현	김민례	김민지	김민찬	김보경	김세미	김소라	김수진	김순정
김영민	김정화	김주영	김진태	김현주	김혜정	김효영	류은숙	문민경	민신기	박경미	박경민	박경수	김수진	박서준
박수정	박은실	박화자	박연희	백미라	백은희	변우경	변이경	변이경	서상일	서효성	성순자	박경수	박미현	박서준
신동식	신우철	신은미	안나영	안수한	양은영	양정아	양현수	양희영	오순옥	윤애란	윤정환	윤주희	송대용	송한림
이승철	이은경	이은미	이주희	이지선	이지훈	임옥남	임태진	임한우	장미영	장재환	정기훈	정연경	정영소	정유빈
정인용	정종철	정 현	정희경	조효정	최기숙	최미숙	최성현	최호선	탁승래	하경혜	함경운	허순행	허혜림	현승환
황선아	황윤영													

2) 일시후원

곽기환	기 부	기부금	김남준	김명자	김은경	김정우	김지연	김태웅	마전초5학년	박소이	박찬민	봉녕사스님들
서동설	윤기영	은동숙	이애자	이종영	임운성	임지연	자선버디	조영현	최용진(보승약국)	한지훈	Advanced Food Marketing	

사랑의 모음터

1) 후원물품

김학준 아채 삼성생명여의도지점 프로그램비 신라호텔 생활잔치 오태현 음료수 이찬송 과일 유해린 비누, 양말, 필통 SK텔레콤 프로그램비

2) 헌혈증서

강경흔(1)	권미숙(2)	권진옥(2)	김소현(1)	노대성(17)	와이즈넷(16)	이수천(10)	이현정(2)
이희철(10)	이명(100)	정동환(10)	정혜승(286)	채성석(4)	드림팩토리클럽(86)	보령중보재단(120)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봉사단(79)	서울호서전문학교(72)	합천우체국(2)	현대백화점(6,000)			

* () 는 기증한 헌혈증 매수입니다.

200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 기부금 영수증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발송 일자	발송 대상
2010년 1월 7일	CMS방법으로 후원금을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 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등록된 후원자
2010년 1월 15일	자동이체, 지로로 후원금을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 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등록된 후원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재단으로 등록하지 않은 후원자는 별도신청)

2) 2009년 12월 3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정보 → 후원정보 → 기부금 영수증 출력(확인용)에서 2009년 내역을 선택하여 인쇄버튼을 누르시면 출력됩니다.

3)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후원자는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인쇄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 001-01-2353-890
- 농 협 : 029-01-176943
- 신한은행 : 140-000-762725
- 우리은행 : 112-04-112571
- 우 체 국 : 012989-01-003327
-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아빠, 나 아파요」

소개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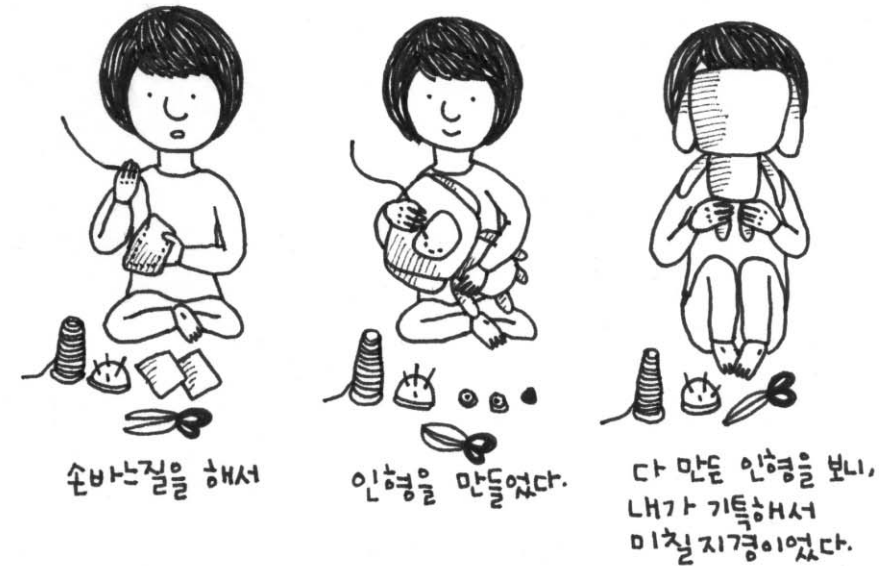
아빠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1979년 출판된 이후, 시대와 국경을 뛰어 넘어 사랑받고 있는 이 책은 몸이 아픈 아이의 걱정스러운 심리를 태연한 척 재미있게 그려냈고, 아픈 아이를 돌보는 아빠와 아이가 보낸 어느 멋진 하루를 따뜻한 그림과 글로 표현한 특별한 그림책입니다. 아이들이 아픈 날 아빠가 아이의 머리맡에서 읽어주면 더욱 감동적인 책이 될 것입니다.

책의 내용

오늘은 에밀리가 아픈 날입니다. 에밀리는 목도 아프고 열도 나고, 작년에 다친 발가락마저 아파옵니다. 아픈 에밀리가 쉬기 위해서는 보습이 이불, 꽃사슴 인형, 몽실이 인형 등이 있어야 합니다. 엄마를 대신해 에밀리를 돌보는 아빠는 아픈 에밀리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꽃사슴 인형을 찾아보지만 허둥거리기만 할 뿐 에밀리의 인형을 찾지 못합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아빠들은 항상 서투른 실수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밀리의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계도 에밀리의 인형도 찾지 못하지만 의욕만은 천하 제일인 에밀리의 아빠!! 결국 너무 열심히 간호한 나머지 다음 날 병이 나고 맙니다. 이번엔 에밀리가 아빠를 돌볼 차례입니다. 힘없이 침대에 누운 아빠를 위해 에밀리는 몽실이, 보습이, 자신의 돈까지 몽땅 갖다 주고, 침대에 앉아 노래도 불러주고 꽃사슴, 체온계도 찾기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 ▶ 글_ 퍼트리샤 맥라클란
미국 와이오밍주 사이엔 출생. 코네티컷 대학원 졸업 뒤 영어 교사로 일했고 오랜 글쓰기 훈련을 거친 후에 작가가 되어 그림책과 어린이 문학 책을 발표함. 1985년에 자신의 가족사를 소재로 쓴 『키가 크고 수수한 새라 아줌마』가 뉴베리상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아동문학상을 휩쓸. 작품 『종달새』, 『케이립 이야기』, 『처음으로 아서라고 불렀어요』 등 다수
- ▶ 그림_ 제인 다이어
미국 7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잠잘 시간』, 『소피의 달빛 담요』 등 스물네 권의 그림책에 그림을 그림. 작품 『동물 모양 비스킷』, 『이제는 잘 시간』, 『오, 귀여운 우리 아가』 등 다수



사랑이 모이는 곳



▶ 제7회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회

제7회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11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연주 단체인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아진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로 지원됩니다.

▶ 전통나눔음악회



10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통나눔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공연의 관람객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전통나눔사무국 직원은 배분된 나눔봉투를 통해 나눔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날 모금된 105만원의 후원금은 재단으로 전달되었으며, 이는 소아암 어린이의 정서적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 2009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항암치료 중,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이 높은 소아암 어린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물품(항균침구류,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용청소기)이 소아암 어린이 58가족에게 지원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MBC 어린이에게세생명을'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우리동네 후원금 전달



프로 가수들의 모임인 '우리동네' 여러분이 공연을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이는 소아암 어린이의 경제적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 헌혈증서 및 물품 전달

▶ 보령제약그룹 '보령중보재단'은 11월 19일, 보령그룹 임직원들이 함께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서 120매와 보령



- ▶ 메디앙스의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봉사단에서는 '나눔으로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봉사단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2차례에 걸친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서 79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 ▶ 현대백화점에서는 고객과 직원 분들이 헌혈증서를 모아 5,000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소아암 완치율 80%, 나머지 20%는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야'라는 내용의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이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YTN 연중기획 '희망 한국, 힘모아 미래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 푸른바다 희망총천

제4회 소아암 어린이 가족 제주체험 '푸른바다 희망총천' (이하, 제주체험)이 40명의 소아암 어린이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소아암 치료를 받는 동안 엄마는 병원으로, 아빠는 회사로, 형제들은 친척집으로 흩어져 지냈던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에게 제주체험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 본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제주 신라호텔'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희망으로 가득 채운 푸른 하늘, 완치기원 연날리기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소아암 어린이 완치기원 연날리기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행사가 9월 4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 160여명과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임직원 여러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잔디밭 위로 완치의 희망을 담은 연을 하늘 높이 띄워 올렸습니다.



* 본 행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미술치료 전시회 소박한 동행, 두 번째 이야기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소아암어린이 미술치료 작품전시회 '소박한 동행, 두 번째 이야기'가 개최되었습니다. 2006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본 전시회에 1,345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이 미술치료를 받으면서 만들어낸 작품을 통해 아이들의 아픔, 그리고 질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내면의 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본 행사는 우정사업본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삼성SDS 1m 1원 마라톤

11월 1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1997년부터 개최되어 온 '소아암 어린이 돕기 1m 1원 마라톤'에 813명의 삼성SDS 임직원들과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이 마라톤에 참가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날 모아진 삼성SDS 임직원 여러분들의 땀과 완치기원이 담긴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지원됩니다.



2010년 봄호부터 재단 소식지의 명칭이 '희망미소'로 변경됩니다. 우리 소아암 어린이들과 후원자 여러분의 희망미소를 가득 담은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미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 다섯 꼬마 똑돌이가
놀이프로그램 중간에
의기양양 환한 미소를 만면에 띄우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게임에서 이겼어요! 우리 하이파이브 해요!'
똑돌이와의 하이파이브,
얼마나 세련지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알알한 그 느낌이 순간순간 느껴질 때마다
마음 속으로 '하이파이브'를
속삭이며 행복을 느낍니다.

